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Strategy

김예은의 전략e야기

전략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Strategy
김예은
02) 6915-5681
yekim@ibks.com

FAANG? 이제는 MAGA

페이스북의 하락

미국 증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에도 탄탄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던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의 시각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 그 신호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SNS 대신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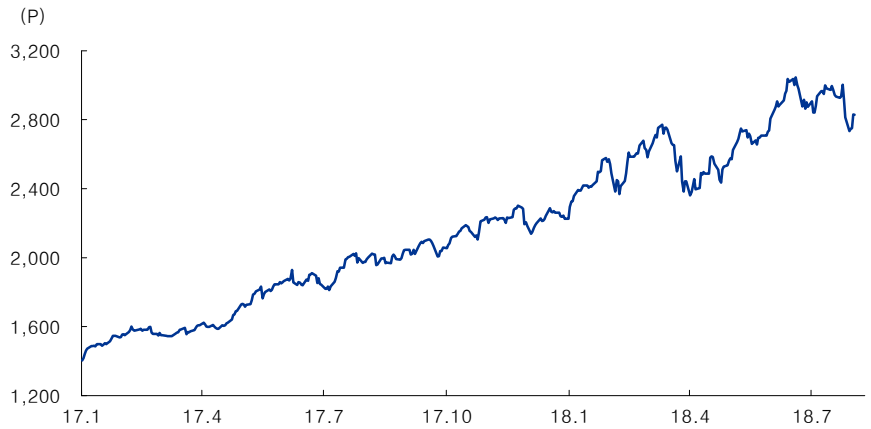
미국의 IT 선도 기업을 묶어서 FAANG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하지만 2분기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에 대한 우려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 역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T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산업보다도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도주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MAGA에 주목하자

이제는 가파르게 성장 중인 클라우드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T 주도주는 광고 비중에 치우친 기업보다는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 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하며 MAGA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이 걸음마 단계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FANG+ 지수의 흐름



주: FANG+ 지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 트위터, 엔비디아, 알리바바, 바이두를 추종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INDEX

(%)	1W	1M	3M	YTD
KOSPI	-0.32	0.66	-8.02	-7.29
KOSDAQ	1.92	-0.87	-8.92	-1.20

VALUATION

(배, 원)	P/E	P/B	EPS
KOSPI	8.60	0.93	265.2
KOSDAQ	14.15	2.04	53.8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탄탄한 펀더멘털, 미국 증시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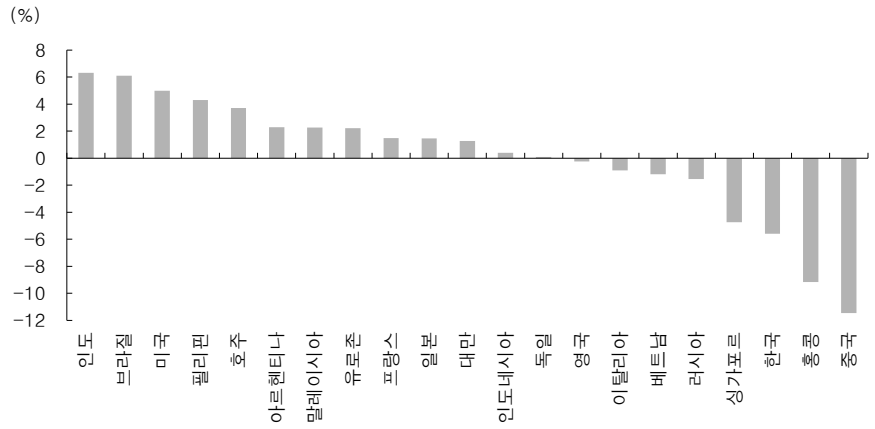
IT 기업의 변화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는 긍정적

미국 증시는 탄탄한 경제와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낸 무역 분쟁으로 다른 국가의 증시는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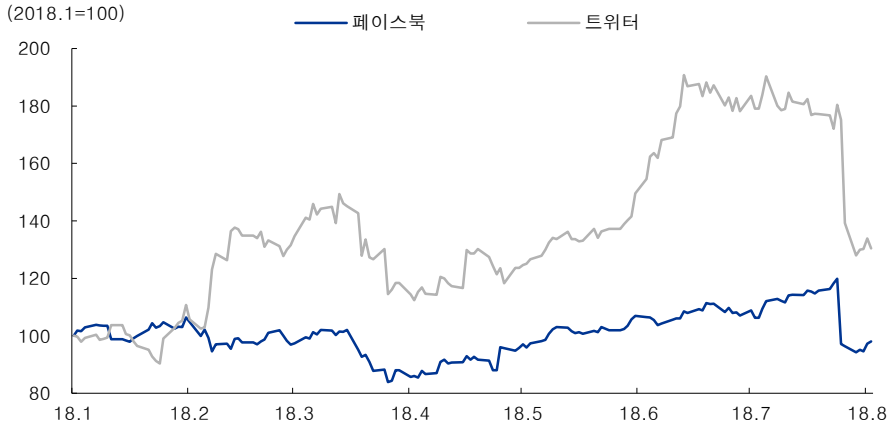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 주의깊게 볼 것이 있다. 바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하락,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이다. 기술주의 강세가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를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 1. 주요국 증시 등락률 (5월 말 대비 8월 3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2. 페이스북과 트위터 주가



주: 1월 2일 종가를 100으로 환산한 수치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혁신이 기반인 IT, 주도 산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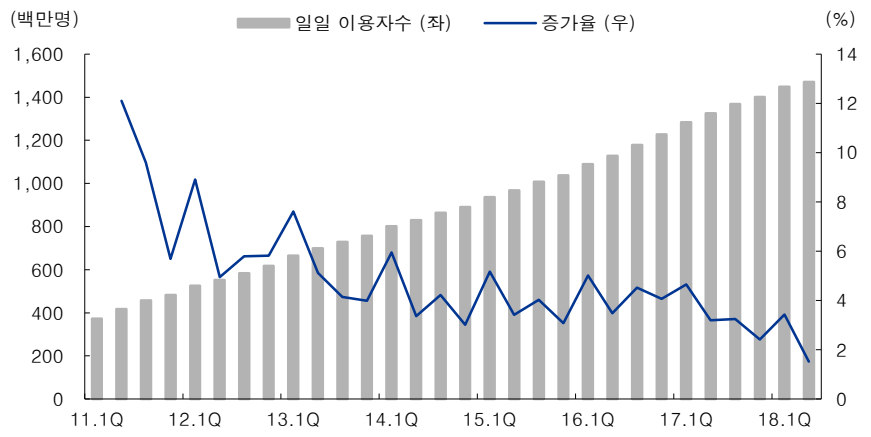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산업에 대한 우려

페이스북, 실적은 호조를 보였으나 일일 이용자수 및 매출에 대한 우려 확산

지난 26일 페이스북은 18.96% 하락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42%, 순이익은 31% 증가한 호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 봤을 때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일일 이용자 수는 아시아 시장의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1% 늘어났지만 시장 전망치인 13%를 하회했으며 유럽 이용자수는 전분기 대비 300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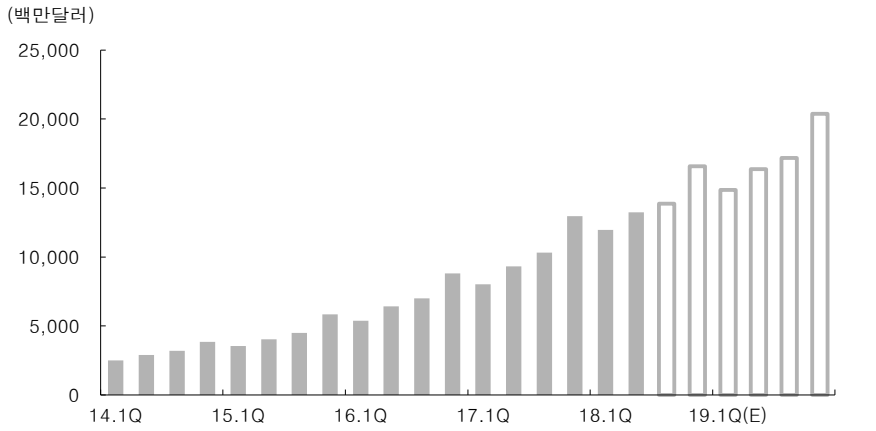
여기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컨퍼런스 콜에서 페이스북 플랫폼이 감소하고 있으며 분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리 숫자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매출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가운데 비용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보안과 사생활 문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림 3. 페이스북의 분기별 일일 이용자수 추이



자료: Facebook, Statista, IBK투자증권

그림 4. 페이스북의 분기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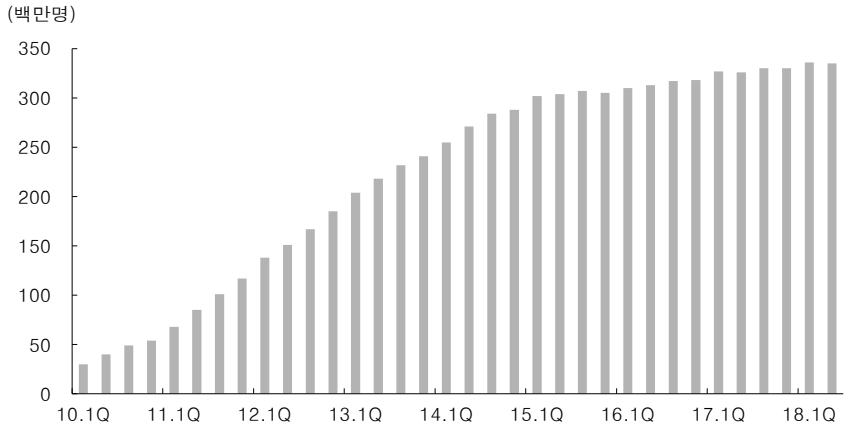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트위터, 실적은 양호했으나, 분기별 월 이용자수는 감소

트위터는 27일 20.54% 하락했다. 트위터 역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별 이용자 수가 1분기보다 100만명 감소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어 이용자 수 감소가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은 이용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판단이다.

그림 5. 트위터의 분기별 월 이용자수 추이



자료: Twitter, Statista, IBK투자증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확산, SNS 산업에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유럽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해명했으며, 영국 역시 이에 대해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SNS 산업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따라서 IT 산업의 주도주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이다.

가파르게 성장 중인 클라우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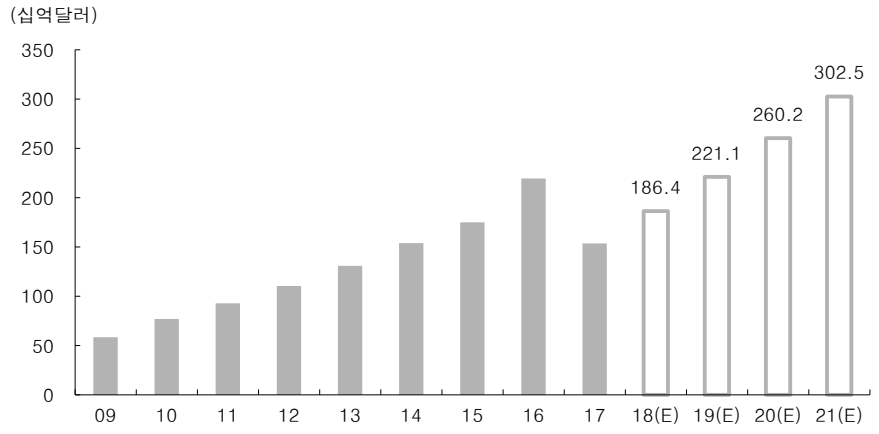
클라우드, 하나의 새로운 산업

IT 산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보다 변화되는 속도가 빠르고 디지털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변화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창출해 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1분기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Amazon Web Services)이 33%, MS(Azure)가 13%, 구글(Google Cloud Platform)이 6%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심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FAANG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6.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자료: Gartner, Statista, IBK투자증권

표 1. 지역별 클라우드 업체 순위(2018년 1분기 기준)

순위	세계	북미	EMEA	아시아	중남미
1위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2위	Microsoft	Microsoft	Microsoft	Alibaba	Microsoft
3위	Google	Google	Google	Microsoft	Google
4위	Alibaba	IBM	IBM	Google	Salesforce
5위	IBM	Salesforce	Salesforce	Tencent	IBM

주: EMEA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자료: Synergy Research Group, IBK투자증권

즉 시장도 FAANG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다른 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도체의 호황에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리잡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인프라 확대로 서버용 D램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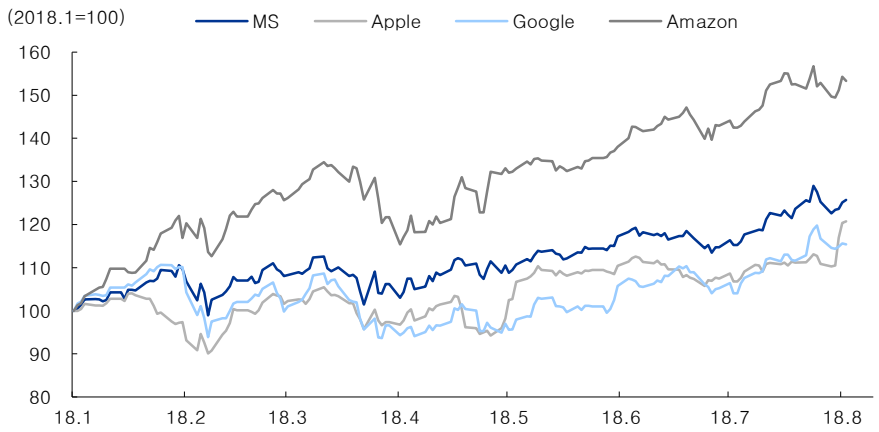
FAANG이 아닌 MAGA

클라우드 시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제는 IT 주도주가 광고 비중에 치우친 기업보다는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 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하며 FAANG이 아닌 MAGA(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의 첫 글자로, 트럼프 행정부의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과 우연히도 첫 글자가 같음)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있는 MS와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1위 점유율을 보이는 아마존이 애플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기업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 및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된 기업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 7. MAGA의 올해 주가 흐름



주: 1월 2일 종가를 100으로 환산한 수치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표 2. 클라우드 관련 주요 국내 기업 (단위: 원, 억원, 배)

종목명	종가	시가총액	2018(E)			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PER	1개월	3개월	6개월
NAVER	731,000	240,957	55,523	10,653	28.90	-2.14	0.55	-19.23
삼성에스디에스	209,000	161,720	101,911	8,853	24.39	6.09	-10.68	-15.38
KT	29,250	76,375	233,538	13,821	11.17	8.74	5.22	-0.68
더존비즈온	55,700	16,528	2,353	585	36.38	-12.15	16.04	12.30
NHN엔터테인먼트	63,800	12,482	11,239	717	11.84	-0.78	5.45	-20.75
다우기술	23,650	10,611	18,163	4,286	6.84	5.58	-2.27	-11.09
케이아이엔엑스	28,200	1,376	575	131	13.11	1.81	75.16	75.70
가비아	9,310	1,260	-	-	-	17.25	20.13	31.13
비트컴퓨터	6,460	1,074	400	70	16.78	4.36	8.75	3.86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Market Review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재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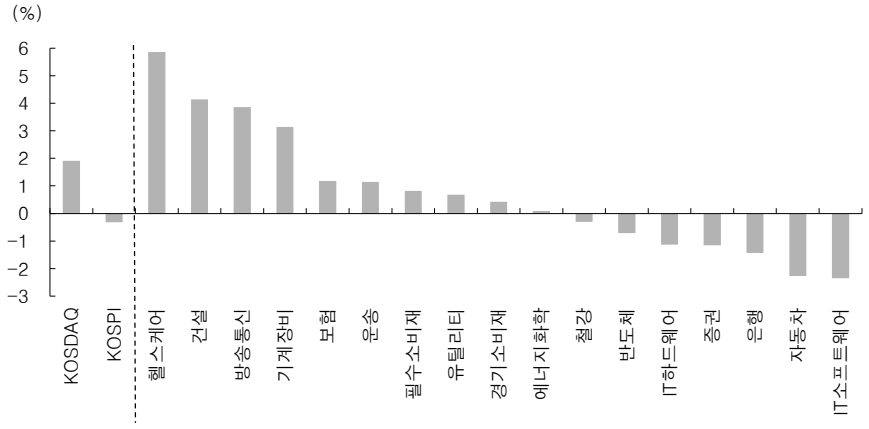
짙어진 경계심리로 거래는 여전히 부진

지난주(7/30~8/3) KOSPI는 0.32% 하락했으나 KOSDAQ은 1.92% 상승함.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경계심리로 하락이 이어짐. 특히 금융투자와 국가 중심의 기관 순매도가 지수 하락을 이끎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916억원, 3,541억원 순매수했으나 기관은 7,174억원 순매도함.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3,880억원 순매수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590억원, 2,220억원 순매도함

상승 : 헬스케어(+5.9%), 건설(+4.1%) 등
하락 : IT SW(-2.3%), 자동차(-2.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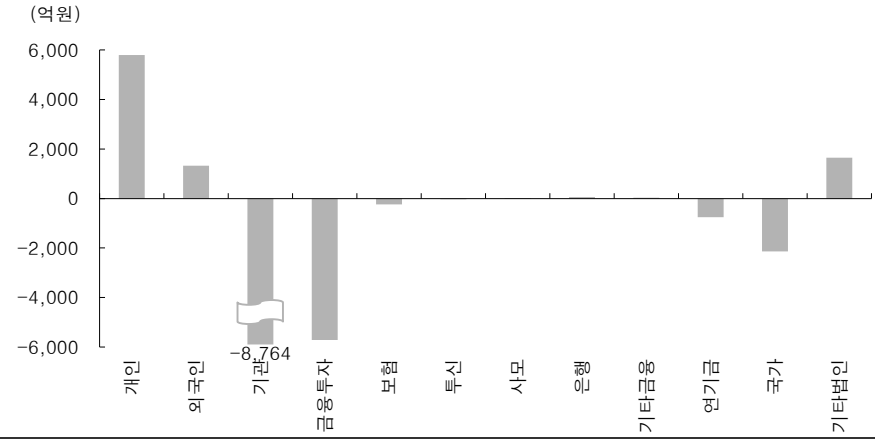
그림 8. 주간 업종별 수익률



주: 섹터는 KRX시리즈를 이용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797억원, 1,321억원 순매수
기관은 8,764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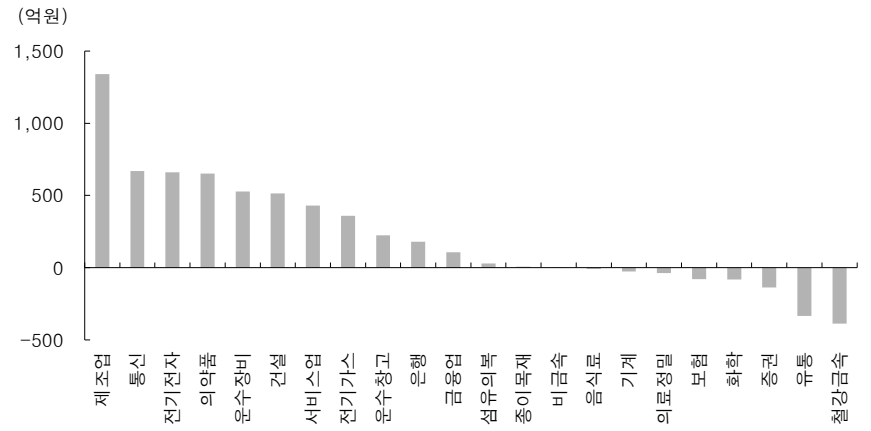
그림 9. 주간 수급 주체별 누적 순매수(KOSPI+KOSDAQ)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통신(+668억원),
전기전자(+660억원) 등을
순매수했으나
철강금속(–386억원),
유통(–333억원)
등을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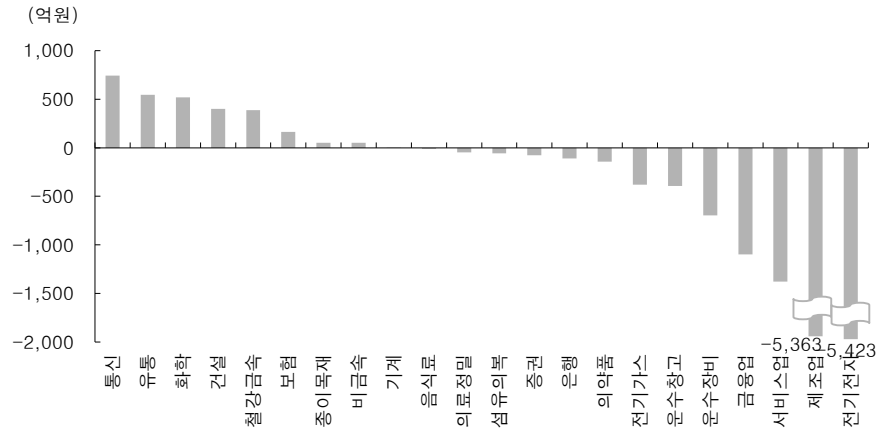
그림 10. 주간 외국인의 업종별 순매수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통신(+743억원),
유통(+545억원)
등을 순매수했으나
전기전자(–5,423억원),
운수장비(–697억원)
등을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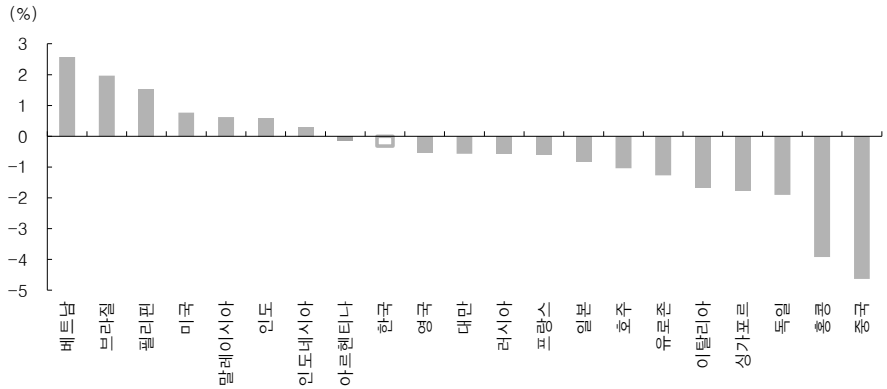
그림 11. 주간 기관의 업종별 순매수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베트남(+2.6%),
브라질(+2.0%) 등은
상승
중국(–4.6%),
홍콩(–3.9%) 등은 하락

그림 12. 주간 주요국 증시 수익률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